국립공원관리공단

프로그램 진행개요

프로그램명	숨겨진 의재 허백련 이야기		
활동목표	증심사지구를 찾은 탐방객에게 평상시에 지나칠 수 있는 의재 허백련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준다.		
해설주제	의재 허백련, 의재로, 관풍대, 의재미술관, 문향정, 삼애헌, 춘설헌		
해설재료	-	소요시간(')	60′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단계	해설주제	주요내용	시간(')	비고
시작	첫인사	- 인사 및 국립공원 이해하기 - 무등산국립공원 소개	10	
주제별 해설	의재로 들어가기	- 증심천의 발원지 - 다리이름 맞추기	15	
	의재로 둘러보기	- 어디까지 알고 있었나요? 관풍대, 의재미술관, 문향정, 춘설헌, 삼애헌	25	
정리	마무리	- 무등산을 사랑합시다! - 끝인사	10	

신청인 :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명)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숨겨진 의재 허백련 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첫인사	(밝고 명랑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숨겨진 의재 허백련 이야기”프로그램 해설을 맡은 무등산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000입니다. (단체의 경우 단체명 등) 여러분의 무등산국립공원 방문을 환영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국립공원 소개	이 곳 무등산국립공원은 많이 와보셨나요? (대답유도)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에 가본 곳 있으신 분 있으세요? 가보긴 했는데 국립공원인지 모르고 계시는건 아니겠죠? 과연 어디어디가 국립공원이 였을까요? 북한산, 설악산, 덕유산, 지리산, 변산반도, 한려해상 등 전국 방방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총 21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공원이 21곳인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것 같나요? 적은 것 같나요?그렇다면 국립공원은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곳이 국립공원이 되는 것일 까요? (대답유도)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지역인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국가에서 보호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생물종의 41%, 멸종위기종의 65%가 서식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생물자원의 핵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등산국립공원 소개	드디어 광주에도 국립공원이 생겨났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13년 3월 4일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988년 월출산국립공원 지정 후 25년만 입니다. 무등산국립공원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화순군과 담양군까지 걸쳐져 있는 호남의 진산이며 광주시민들은 어머니의 산이라 불릴 정도로 사랑받는 산입니다. 무지개를 뿜는 돌과 같다 하여 무돌산 또는 서석산 그리고 상서로운 돌이라는 뜻에서 무진악이라 불렸습니다. 증심사 쪽에 무당골이 있어서 또는 큰 당산(마을의 수호신있는 산이나 돌)으로 삼아서 무당산으로도 불렸습니다.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던 무등산은 무돌(무지개를 뿜는 돌)의 이두음으로 써서 고려 때부터 무등산으로 불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무등산이라는 이름은 비할 데 없이 높고 큰 산,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무등산국립공원은 1,187m로 완만한 산세를 이루는 흙산으로 멸종위기종 8종을 포함한 2,296종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주상절리대(입석대, 서석대 등), 너덜경(지산너덜, 덕산너덜등)같은 기암을 포함한 61개소의 자연경관이 있습니다. 문화경관자원으로는 증심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등 보물 2점을 포함한 지정문화재 17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산물로는 수박과 차가 유명하답니다. 무등산국립공원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대답유도)
증심사천	(의재교 앞)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물길은 증심사천입니다. 증심사천은 총 길이 5.85km로 무등산 새인봉과 중머리재 북서쪽 골짜기에 발원해 증심사쪽에서 내린 물과 1수원지 물을 더해 서쪽으로 흘러 홍림교를 지나 광주천으로 흐릅니다. 오늘 우리가 온 길을 따라 광주천까지 쭉 흐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비교적 오염이 되지 않은 하천입니다. 예전에 이곳 증심천을 따라 닭백숙과 빈대떡, 막걸리를 파는 식당과 그 음식을 먹는 평상이 물줄기를 따라 쭉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 식당에서 나온 물이 증심사천을 많이 오염시켰었는데요. 지금은 식당들 모두 아래쪽으로 이전되어 증심사 집단시설지구를 이루고 있는데요. 올라오시는 길에 모두들 보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는 맑고 깨끗한 증심사천을 보며 산행을 즐길 수 있답니다.

의재교	지금 건넜던 다리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대답유도) 네. 맞습니다. 맞추신 분들은 한자실력이 월등하시거나 무등산을 많이 와 보셨나보군요! 우리가 건넌 이 다리는 의재교이고, 이 길은 의재로입니다. 조금만 위로 올라가다 보면 '2001년 한국건축문화대상'을 받은 멋진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곳의 이름은 의재미술관입니다. 네. 이 다리의 이름은 의재교,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의 이름은 의재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위쪽에 멋진 건물의 이름은 의재미술관인데요. 왜 이곳에 의재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대답유도)
의재 허백련	바로 이 곳 광주 무등산자락에 1938년부터 40여년간 머물며 많은 명작들을 완성하고, 연진회를 조직하여 한국화의 맥을 이어나갔던 의재 허백련선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재 허백련은 한국 남종화의 대가이며 소치 허련의 제자입니다. 남종화란 동양화의 한 분파로 북종화에 대비되는 화파입니다. 그의 스승은 소치 허련으로 추사 김정희에게 서풍도 전수받고 남종문인화의 필법과 정신을 익혀 한국 남종화의 선구자가 된 인물입니다. 소치 허련의 스승인 추사 김정희도 " 압록강 동쪽으로 소치를 따를 만한 화가가 없었다." 던지, "소치의 그림이 내 것보다 낫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재 허백련은 무등산 천제단에서 친지들과 함께 개천절 제향을 복원하여 국조 단군 숭앙의 기초를 다지는데 힘썼으며, 무등산 개천굴건립위원회를 만들고 기금마련을 위해 수 차의 개인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춘설차를 제작·보급하고 농업지도자양성을 위해 '광주농업고등기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의재미술관 뒤편에 약 99.174m²(약 30평)정도의 춘설차밭이 있을 정도로 차(茶)문화부흥을 위해 힘썼던 인물입니다.
관풍대	여기서부터 증심사로 가기 전까지 구간에는 의재 허백련의 공간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다례실습장으로 쓰이는 관풍대, 차공장, 춘설헌, 문향정, 의재묘소, 의재미술관 등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천천히 걸어가면서 그 곳이 나오면 어떤 곳인지 말씀드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 쪽에 보이는 건물이 바로 관풍대입니다. 의재선생이 지인들과 춘설차를 마시던 곳으로 '세상을 보다'라는 의미의 관풍(觀風)의 의미를 담아 관풍대라 하며 지금은 다례실습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의재미술관	이 곳은 의재미술관으로 '2001년 한국 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한 건물입니다. 안 쪽으로 들어 가보면 미술관 로비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데 병풍의 형태로 무등산의 사계절을 언제나 감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비탈에 세워진 건물인 만큼 산 아

	래쪽이 더 넓고 위쪽이 더 좁은 형태로 되어 있으며 미술관 내외 경사로는 무등산 등산로의 경사로와 같게 하여 마치 산을 걷는 느낌을 준다고 하니 다들 한 번씩 방문해서 전시된 작품도 보시고 화장실 칸칸이 넓이와 모양도 다르다고하니 건물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문향정	오른편에 다리 건너 가시면 문향정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곳은 예전에 '광주 농업 기술학교'의 실습용 축사였다고 합니다. 문향정 옆에는 예전에 소를 키우던 우사터도 있습니다. 우사터 밑으로 건물 한 채가 보이는데 그 곳에는 물레방아가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대답유도) 물레방아로 춘설차를 만들던 차공장이였기 때문입니다. 화재로 소실되었던 건물을 복원하여 지금은 전통제다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춘설헌	위 쪽으로 뻗어 있는 오솔길로 직진하면 의재선생 묘와 옛 농업학교 예전의 계사터·양사·돗사터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건물 한 채가 보이는데 춘설헌이라는 곳입니다. 의재선생이 1958년에 지은 화실이자 살롱입니다. 의재 선생의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모여서 그림을 그리던 곳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곳을 벗어나 증심사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삼애헌	증심사로 이동하는 길에서 위쪽으로 가시면 삼애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애천(愛天), 애토(愛土), 애인(愛人)의 삼애정신(三愛精神)을 담은 이름으로 '광주 농업기술학교' 건물이였습니다.

	지금은 의재미술관을 찾는 이들에게 춘설차 맛을 알려주는 '차 문화교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기회가 되신다면 증심사를 찾아 오셨을 때 의재미술관과 춘설차를 즐기러 찾아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무등산국립공원은 호남의 영산 또는 어머니의 산이라 불립니다. 그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광주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산입니다. 인구 150명이 살고 있는 대도시 근교에 위치하여 있으며 연간 약 700만명이 방문하는 곳이지만, 잘 보전된 자연환경과 생태적 가치를 통해서 무등산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등산국립공원 증심사지구를 방문하실 때에는 다른 누구보다 아는 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시간동안 저를 따라 이동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 「무등산」- 박선홍, 다지리(2008)
- 「의재허백련의 차정신에 관한 연구」,이영애 (2009)